

■ 르포-광주여대서 열린 '항공일자리 설명회' 가 보니

공항 일자리 잡아라... 대학생·취준생 복세통

취업 선배 조언 듣고 합격기 강연
대한항공 등 항공사 3000명 채용
인천공항 취업하고픈 공기업 1위
흑산공항 등 설립 땀 일자리 ↑
지역인재 가산점·의무채용 활용을



한국공항공사·대한항공 등이 참여한 '항공일자리 지역별 설명회'가 열린 5일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은 대학생·취준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일자리취업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한 '항공일자리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가 열린 5일 광주여자대학교 국제회의장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광주, 김해, 제주 등 지역에서는 단 3회 열리는 민간 합동 설명회라 취업준비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적기 항공사가 마련한 상담 부스에는 긴 줄이 줄어들 줄 몰랐다. 내부 대강당에서는 각 사별 인사 담당자의 설명회와 취업 선배의 합격성공기 강연이 잇따라 진행됐다. 지역 대학 취업지원센터가 마련한 자기소개서 첨삭·메이킹업·이미지 사진 촬영 부스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 사무직을 지망하는 유슬린(26·전북대 프랑스학과 4년)씨는 '해외 연수 경력이 입사지원 때 도움이 되는지', '외국어 시험 성적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전남대 출신 취업 선배에게 꼼꼼히 묻고 조언을 얻었다. 유씨는 "지역 설명회는 흔치 않은 기회라 아침 일찍 전주에서 달려왔다"며 "지역 출신 신입사원의 면접 경험담을 들으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설명회장에는 부스를 분주히 오고 가는 남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조장대 항공정비학과 신입생인 정병복

(20)씨는 "토익 시험과 항공정비사-항공산업기사 자격증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이런 설명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항공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한국공항공사는 연간 600여 명의 조종·정비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200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일자리포털에 공개한 항공운송산업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관련 산업 일자리 수는 총 7만8581개에 달한다. 기업체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168개)·항공기정비업(14개) 등 359개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항공운송사업(100개 기업·5만2230개)으로 전체 일자리의 66.5%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기취급업(11.5%), 공항운영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8.3%) 등이 뒤를 따랐다.

대한-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티웨이-에어인천-에어서울 등 9개 국적항공사는 매년 3000여명을 채용하고 있다. 지난해 9개사는 총 3971명을 채용해 전년(3279명)보다 21.1% 더 사람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보면 지난해 대한항공은 객실승무(650명)·운항조종(200명) 등 1150명을 채용해 규모가 가장 컸다.

'신의 직장'으로 떠오른 인천국제공항공사(IAC)는 지난해 55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업정보사이트 잡코리아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1위에 뽑힌 공사의 올 신입사원 평균 초임은 4450만원이다.

무안공항, 제주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KAC)는 올해

상반기에는 83명, 하반기 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채용규모(214명)에 비해서는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지만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전면 확대해 실력자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달 응시지원을 마감한 공사는 입사지원서를 성별, 연령, 학력, 사진 등 인적사항을 완전히 배제했다. 면접 때는 지원자의 학력, 성별 등을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고 '인공지능(AI) 면접'을 도입해 직무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성승면 한국공항공사 인사팀장은 "흑산공항·울릉공항 등이 새로 들어서면 채용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인재에 대한 서류전형 가산점(3점)과 의무 채용비율(35%)을 활용하면 공항 취업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9.11 (+2.14)	↓ 금리(국고채 3년) 1.54 (-0.03)
↑ 코스닥 707.75 (+5.22)	↓ 환율(USD) 1178.60 (-4.20)



광주국세청, 광주보훈요양원 위문금 전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오른쪽)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하고 선풍기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형환 청장은 보훈대상 가족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배려와 관심을 부탁하고,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맑은 바소임을 다하고 있는 요양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

생과 헌신을 기약하고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주보훈요양원'은 지난 2008년 개원 이후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6·25참전 상이용사 및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원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무역전문인력 양성 교육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통·번역 가능한 지역민을 무역전문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전남중기청은 광주전남KOTRA 지원단, 광주국제교류센터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 대강당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한다.

교육은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어가 능통하고 한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무역의 개념, 수출입 허

름, 무역 계약, 통·번역 실습, 대금결제역이 가능한 지역민을 무역전문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전남중기청은 광주전남KOTRA 지원단, 광주국제교류센터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 대강당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한다.

교육은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어가 능통하고 한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무역의 개념, 수출입 허

광주은행, 어린이날 그림대회 시상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4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지난 5월 5일에 개최한 어린이날 그림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중한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펼친 이번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그림대회'에는 1만여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날의 추억을 만들었다.

유지부, 초등부 저학년, 초등부 고학년 각 부문 대상은 박예슬(서석 유치원), 염지호(새별초등학교 1학년), 박소은(신용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수상했으며, 동상 이상을 수상한 어린이 30명을 본점에 초청해 상장과 메달, 부상, 기념품 등을 수여했다.

수상작 30개 작품은 4일부터 2주간 광주은행 본점 1층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미래에 대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서광주농협·기아차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

서광주농협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5일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을 함께 열었다.

이날 오후 광주공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과 박래석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장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서광주농협은 가격 하락으로 유통·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무안 양파 5kg 7500망(37t)을 구입해 기아차 직원 6000여 명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기아차 직원들은 양파 소비 촉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화답했다.

문병우 조합장은 "양파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양파 수급 안정 및 가격 지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지역 기업과 손을 맞잡고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이농향

시, 음악, 그림으로 일상에 문화수집도 찍어온

- 친절한 감상, 해설 프로그램들 인기
- '마티네 콘서트' 열기 ACC 브런치 콘서트
- 온라인 세상에 꽃피는 '시 르네상스'

원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

미술이 꽃 피는 섬 제주도

해외문화 현장

클림트의 그림으로 매혹하는 빈 벨베데레공전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

코펜하겐 자성의 신전 덴마크 왕립도서관

소설가 김용태가 전하는 '내 이웃의 소확행'

유리컵을 좋아하는 허영인씨 "행복이 유리컵에 담겨있는 것 같아요"

예향 초대석

항일역사 그려내는 만화가 박시백

"일제강점기 35년은 우리사회의 원형"

문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토지'의 무대에 자리한 공간 하동 박경리문학관

한국영화 100년-남도 시네마 산책

1930년대 광주 출신 영화제작자 최남주 감독 박기채

트렌드 따라잡기

도전하는 시니어들 은빛 매력이 눈부시네

배극남의 대중문화 X파일

스타일의 선한 영향력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헤르만 헤세 VS. 토마스 만

법독일권 격정, 혼돈 그려낸 소설가

진시 리뷰

광주시립미술관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전

예향이 만난 이 사람

군제대 후 '핫 스타'로 복귀한 KIA 박찬호

몸과 마음 환해지는 엘로우 시티

장성

명칭한 신비 문화를 배우다

술과 호수의 정취 만끽하는 길